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044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일

발 의 자 : 금광연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가. 하남시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약수사는 1983년 창건 이후 지역 사회에 헌신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소중한 사찰임.
- 나. 그러나 약수사의 대웅전과 아미타 대불이 위치한 부지가 교산 신도시 개발 대상지로 포함되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다.
- 다. 개발로 인해 사찰 부지가 양분되면서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이 반토막이 되어 사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종교 활동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결의문(건의문) : 붙임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문

하남시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약수사는 1983년 창건 이후 지역 사회에 헌신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소중한 사찰이다.

그러나 약수사의 대웅전과 아미타 대불이 위치한 부지가 교산 신도시 개발 대상지로 포함되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다. 개발로 인해 사찰 부지가 양분되면서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이 반토막이 되어 사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종교 활동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약수사는 하남시 홍보 영상에도 소개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도롱뇽과 맹꽁이의 서식지로 알려져 생태적 가치 또한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10월까지 약수사 부지에 대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찰의 존치 의사를 보였으나, 2024년 9월 입장을 번복하여 약수사 ‘존치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동은 신도 및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의 염원과 약수사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약수사 주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약수사 원형 보존을 위한 책임 있고, 일관된 행정 처리를 촉구한다.

2025년 2월 19일

하 남 시 의 회